

##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다

**핵심 구절:**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주실-산이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제공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22:14**

**선택한 성구:**

**창세기 22:1-18**

핵심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강력하고 자주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어야 했던 감정적 트라우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삭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 중요한 순간을 탐구하기 위해 많은 해설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쓰라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라는 귀중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순종하고 네 아들, 네 외아들까지 버리지 않았으니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하리라. 당신의 후손은 적들의 도시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당신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16-18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지극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증거를 따르지 않으실 것이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는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끄신 장소를 보고 하인들에게 "당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소년과 나는 조금 더

멀리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22:5). 아브라함은 "우리"를 복수형으로 "바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 장소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내 아버지여!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번제용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갔어요." 창세기 22:7,8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근처에는 덩불에 가시덩불에 갇혀 있던 숫양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에서

숫양을 드리는 것은 이전에 희생된 양이나 수송아지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제사를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셨고, 숫양은 그 제사를 받으셨음을 나타냅니다. 9-13절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공급하실 것이며, 실제로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17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고 인간 가족의 회복을 위한 생명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요한복음 1:29)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신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의 전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을 의롭게 하실 것을 예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시며 이르시되 네게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8